

21세기 교회교육과 개혁주의 예배

오덕교

(합동신학교, 역사신학 교수)

《목 차》

- | | |
|--------------------|--------------------|
| 1. 개혁주의 교회와 예배의 원리 | (3) 예배의 자세 |
| 2. 예배와 교육 | (4) 예배의 시간 |
| 3. 개혁주의 교회와 예배의 지침 | 4. 개혁주의 교회와 예배의 성격 |
| (1) 예배의 대상 | 5. 맺는 말 |
| (2) 예배의 방법 | |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1세기가 과학의 발달로 초정보 사회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 자기 중심적이며 비윤리적인 시대로 변할 것을 예견한다. 이러한 시대 진단에 근거하여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21세기에 교회도 존재하며, 오늘날과 같은 방식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지, 과연 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반문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편하고, 예배를 변형시켜서 시대 조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는 현대 교회의 예배가 너무 경박하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천주교회와 같은 장엄한 의식을 도입하여 엄숙한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예배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으므로 빈야드 교회와 같이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은사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신시대를

수용하기 위해 설교 중심의 예배를 과감히 철폐하고 연극이나 팬터마임과 같은 것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연극 예배의 실시를 주장하고, 비디오 예배를 보편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자문하게 된다.

참된 예배는 성경에 기초한다. 성경을 통해 보여 주신 신약적인 예배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누구라도 이러한 전통에서 떠나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중세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 무지와 미신 가운데서 성자(聖者)와 성물(聖物)을 숭배하고 화제설로 예배를 부패시킬 때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성경적 예배의 회복을 주장하였고, 영국 국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인 미신적인 예배를 장려할 때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예배를 복원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의 역사는 바른 예배의 실천, 곧 성경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싸워 온 발자취였다. 따라서 필자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온 개혁주의자들의 예배 원리와 예배 신학을 논하므로 21세기 교회가 채용해야 할 예배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혁주의 교회와 예배의 원리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이며,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예배 받으실 하

나눔이심을 계시하시고(롬 1:20),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이나 달, 태양, 땅위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다(시 19).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든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해야 한다(사 43:21).

예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확신이나 윤리관을 표현하며,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신앙은 신조의 형태로 표현되기 전이라도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예전을 통해 배우게 된다. 모든 사람은 예배를 통해 선진들의 예배 드리는 전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훈련된다. 기독교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우게 된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므로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예배와, 예배의 대상과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와 바른 신학적 전통의 확립을 위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성경적인 예배 원리를 제시하여 개혁주의 예배 전통을 세운 인물로 칼빈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교회가 오랫동안 전수해 온 신학적 전통을 높이 평가하면서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기독교 예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루터와는 달리,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금한다' (Quid non jubet, vetat)는 것을 그의 예배 원리로 채택하였다. 그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충성과 이웃 사랑을 고무시키는 것

으로 보고, 이처럼 덕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은 예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¹⁾ 참된 예배는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과장된 허식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야 하고,²⁾ 단순 명료하게 드러야 하며,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또는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예배의 목적과 성격을 논하면서, 성경적 예배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교회가 고백해 온 신앙고백이나 교회의 전통을 예배의 표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이 예배의 원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³⁾고 하였다. 곧 예배의 내용이나 방법을 인위적으로 고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본질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다고 하였다. 지엽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은 교리나 예배와 같은 것으로 이성적이라거나 전통적이라는 핑계로 인위적인 교리나 예배를 고안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예배 시간이나 장소,⁴⁾ 성찬식 때 쓰이는 포도주의 색깔 등을 지엽적인 것으로 취급했고, 그러한 것에 대해

-
- 1) John Calvin,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in *Tracts and Treatise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Church*, edited by Thomas F. Torrance,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2:118.
 - 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xv. 19.
 - 3) Calvin,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2:118.
 - 4) Inst., III. xx. 29; II. vii. 33-34.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였고,⁵⁾ 예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필요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⁶⁾

칼빈의 예배 사상은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칼빈 신학의 철두철미한 계승자로,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이 그 창시자요 제정자가 아니라면 적법하지 않다”⁷⁾고 하였다. 왜냐하면 신명기 4:2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었고, 다른 성경에서도 인간이 교안한 예배를 가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신 12:32; 마 15:9; 행 17:24-25; 출 20:4-6).⁸⁾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이나 교안을 우상숭배나 불신앙으로 간주하실 뿐만 아니라 싫어하신다.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신학의 정수」(*The Marrow of Theology*)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 중심적 신학 원리를 제시하였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교회 교육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신앙과 도덕의 부분적인 규범이 아니라 완전한 규범이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권위나 전통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켜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⁹⁾ 그리고 윌리엄 브래드쇼(William Bradshaw)는 1605년 쓴 「영국 청교도운동」(*English Puritanism*)에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말씀에 의하여 확실하게 규정된 대로 드려야 한다”고 하였고, 존 코튼(John Cotton)도 서술하기를, “성경은 내적이거나 외적이며, 도덕적이거나 의식적인 모든

5) Inst., IV. xii. 43.

6)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반석출판사, 1992), p. 211.

7)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Durham, North Carolina: The Labyrinth Press, 1983), II. xiii. 10.

8) *Ibid.*

9) *Ibid.*, I. xxxvi. 15.

예배의 직접적이고 유일하며 총족스런 법칙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입증되며,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일반적인 신앙고백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하였고,¹⁰⁾ "이처럼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합당한 예배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만든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청교도들이 인위적인 예배를 배척한 것은 십계명의 교훈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 2계명에 "너를 위하여 ... 만들지 말라"고 하였는데(출 20:4),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예배를 고안하고 만들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계명과 관련하여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망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전적 예배 대상 앞에, 혹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된다"고 하였다(21:2). 코튼도 인간이 고안한 예배는 "참된 경건을 가르치거나 교양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하여 미신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왜

10) John Cotton, *Some Treasure Fetched Out of Rubbish: Or Three Short But Seasonable Treatises* (Found in an heap of scattered Papers), Which Providence Hath Reserved for Their Service Who Desire to Be Instructed, From the Word of God,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Use of Significant Ceremonies in the Worship of God (London, 1660), p. 34.

11) John Cotton, *A Treatise: I. Of Faith. II. Twelve Fundamental Articles of Christian Religion. III. A Doctrinal Conclusion. IV. Questions and Answers upon Church-Government* (Boston, 1713), p. 5

나하면, 인간의 본성은 “육적이요, 맹목적이며, 무능하기 때문이다.”¹²⁾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되거나 명령되지 않은 인간이 고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 주며,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게 하는”(민 15:39) 자의적인 예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예배의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므로, 교회는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혹은 세상의 관심을 끌면서 적절하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배를 고안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 예배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물론 선교적 차원에서 연극을 개발하고 무용을 보급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배의 저자(author of worship)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설령 인간이 그와 같은 예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 뿐이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예배를 고안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레 10:1-2).

2. 예배와 교육

올바르게만 드러진다면 해서 예배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예배는 이해되어야 한다. 중세 시대의 로마 교황청은 라틴어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언어로 간주하고,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진행하

12) Cotton, *Some Treasure Fetched out of Rubbish*, pp. 20, 9.

여 일반 성도들은 예배를 이해할 수 없었다.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찬송하였기 때문에 중세인들에게 예배는 알지 못하는 주문을 외는 것이 되었다. 무지는 예배를 미신적으로 변질시켜, 성자 숭배, 성상 숭배, 성물 숭배, 연옥에 대한 신앙, 교회의 면죄 사상을 낳게 하였고, 결국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도한 것이 예배를 회중의 언어로 바꾸어 예배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예배가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설교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언어를 말씀 전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의 학식을 나타내거나 청중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회중 편에서는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성례는 상징적인 것이어서 성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교육과 설교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징들이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¹³⁾ 이와 같은 신학적 이유로 칼빈은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입교한 후 성찬을 처음으로 받기 전에 교리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교하였고,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 교육도 실시하였다.¹⁴⁾ 그는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을 교육하므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칼빈이 예배의 이해를 위해 교회 교육을 강조한 것과 같이 개혁주의자들도 기독교 전반에 대한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13) Inst., IV. xiv. 3-4.

14) Inst., I. v. 2; Leith, op. cit., pp. 211-212.

다. 닉스는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Scottish Confession)와 「치리서」(Book of Discipline)를 작성하였다. 그는 「치리서」에서 교회 개혁의 방안으로 기독교 교육의 실시를 제안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회가 문법과 라틴어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두고, 각 마을마다 고등교육 기관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며, 배움이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뉴잉글랜드 청교도들도 교회의 부패가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무지로 인해 미신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믿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섰다. 특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독본학교(Reading School)를 세워 어린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문법학교(Grammar School)를 세워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하였고, 뉴잉글랜드에 도착한지 6년만에 하버드 대학을 세워서 뉴잉글랜드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청교도들이 이와 같이 교육을 강조한 것은 신앙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시 잠깐 존재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 이러한 청교도의 관심은 자녀 교육관에도 잘 나타난다. 그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였다. 보스톤 교회의 목사였던 존 놀튼(John Norton)은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누리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것은 신발에만 관심을 갖고 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다”¹⁵⁾고 하여, 세상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15) John Norton, *Abel Being Dead yet Speaketh* (London, 1658), p. 3.

보고 영적인 성장이 교육의 목표임을 밝혔다. 하버드 대학이 좌경화 하자, 1701년 예일 대학교(Yale College)를 세워 정통 신학운동을 전개하였던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만일 당신 자녀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단지 현세적인 부귀와 영화라면, 당신은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면, 당신과 당신 자녀의 몫은 이 세상뿐이요, 저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¹⁶⁾라고 말하여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늘 나라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청교도들이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교육을 강조한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며 성경과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누구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 수 밖에 없고, 결국 죄악 가운데 생활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나 중생을 체험한 성도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체험하고, 세상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였다. 코튼 매더가 지적한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뉴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코튼(John Cotton)은 맹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라” 하지

16) Cotton Mather, "What the Pious Parent Wished," in *A Course of Sermons on Early Piety* (Boston, 1721), p. 9; Edmund S. Morgan, *The Puritan Family: Religion and Domestic Relations in Seventeenth Century New England*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6), p. 87에서 재인용.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고 하였고,¹⁷⁾ 벤자민 워즈워스(Benjamin Wadsworth)도 “만일 귀하의 자녀가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글을 가르치시오. 그러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지 않게 하시오”라고 하였다.¹⁸⁾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항상 힘썼다.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 아침이나 저녁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였다. 그들은 정기적인 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기 교육은 주로 가장(家長)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 가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주관하면서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믿음을 통한 구원, 성화와 구원의 확신과 같은 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주일 날이 되면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 존 코튼이 작성한 「어린이를 위한 우유」(Milk for Baby)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소요리문답서」를 가지고 교리 문답을 실시하여 신앙을 다지고 바른 신앙위에 서도록 하였다.

청교도에게 학교 교육의 목표도 거듭난 성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청교도들은 자녀가 자라면 독본학교에 보내어 영어를 배우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단지 영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쳤다. 독본학교에서 사용한 영어 교재인 「뉴잉글랜드 프라이머」(New England Primer)에 보면,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문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다. 곧 그들은 A자를 가르치면서,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다”(In Adams fall, we sinned all)는 인류의 타락

17) John Cotton, *Practical Commentary upon John*, p. 102; Morgan, *The Puritan Family*, p. 88에서 재인용.

18) Benjamin Wadsworth, *Exhortation to Early Piety* (Boston, 1702), p. 51.

과 원죄 교리를 가르쳤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자녀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들이 설교 시간에 무엇을 들었으며 얼마나 이해했는지 어려운 말씀은 없었나를 살핀 다음, 들은 말씀을 설명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가정, 학교, 교회 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영혼 구원을 도모하려고 하였고, 거듭남을 체험한 이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다.

3. 개혁주의 교회와 예배의 지침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서술하고 있는데, 그 핵심 사상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제 1계명에서 제 4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을, 제 5계명에서 제 10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제 1계명에서 제 4계명을 중심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지침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의 교회들이 신앙적인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와 영어권의 교회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작성된 신앙 고백이라고 확신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예배의 대상

먼저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개혁주의자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준다고 주장한다. 십계명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부분과 금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은 제 1계명의 금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신뢰나, 그 분에게 들려야 할 선하심과 덕에 대한 찬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말과 몸짓, 외적인 표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다.¹⁹⁾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제 1계명이 “모든 우상숭배와 마술을 피하고, 버려야 하며, 성자들에게 기원한다거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²⁰⁾을 금지하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또는 그런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는” 우상 숭배를 금한다고 하였다(95문).

「대요리문답서」는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제 1계명을 해석하면서,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여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1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The Baker Publishing Company, 1982), 「기독교 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86), p. 76. 앞으로는 1559년 판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로 사용할 것이다.

2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문 94: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p. 244.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으로 그를 찾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며,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04문). 또한 제 1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신론, 우상 숭배,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대만시 하는 것, "헛된 경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심, 절망, 완고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박, 교만, 뻔뻔스러움, 육신에의 방종,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 육에 속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 ...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배교하는 것, 성도들이나 천사들, 또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05문).

이와 같이 개혁주의 신조들은 예배의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을 정죄 하였다. 또한 무신론이나 불신앙적인 사상을 배척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관은 21세기가 되어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천지는 변해도 예배의 대상은 변할 수 없다.

(2) 예배의 방법

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설명한다면, 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교훈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를 상징하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회상하거나, 예수님을 성화를 통하여 상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제 2계명이 보여준다. 칼빈은 2계명을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석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만물을 포용”하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상징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한 상징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고 하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치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습으로 형용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화 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이시며 진리이신 그 분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아둔한 머리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거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분에게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감히 부과하려 하거나, 감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서도 안된다.” 죄성으로 인해 인간은 “주께서 금하는 고안된 예배가 아니고는 감히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고 있으며, … 성자들이나 천사들, 특히 동정녀 마리아를 모든 은혜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인 것처럼 간주하며, 그들의 공로로 인하여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자들과 천사들, 그리고 마리아는 화해와 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중보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칼빈은 지적했다.²¹⁾ 따라서 칼빈은 인간

21) 「기독교 강요」, p. 77.

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로마 천주교회의 천사, 성자, 형상 예배를 이교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개혁주의자들은 성화나 성상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나 루터파 교회에서는 “성화(聖畵)를 평신도들의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성화 사용을 권장한다. 그들은 성화가 문맹자와 어린이 교육에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배에 조각된 우상이나 성화 사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칼빈은 어떤 경우에도 성화 사용은 정죄 된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로마천주교회의」 최종적인 회피는 우상을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해도 그 말은 전적으로 헛된 것이다. 무릎을 꿇는 유일한 이유가 확실히 경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형상들이 교육받지 못한 자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묘사하여 보여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의인화(擬人化)된 신을 제시하여 주는 것 외에 다른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가장 타락한 정욕과 음탕함의 본보기 외에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²²⁾ 이와 같이 칼빈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성화나 성상의 모양으로 상징화하는 것을 정죄하고 금하였다.

성상이나 성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칼빈의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 96문은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하기를,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그가 말씀 안에서 명령한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를 섬겨도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97문은 하나님을 그림의 모양으로 그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을 가

22) 「기독교 강요」, p. 79.

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된다. 피조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을 금하신다”고 하였다. 또한 98문은 교회에서 성화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우상에 의하여 배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배움을 받는 것을 원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게 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대요리문답서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 대요리문답 109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 전부나 그 가운데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고안이나 인간적인 전통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 드려야 할 것과 어떤 상징물로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어떤 새긴 형상이나 그림으로 상징화하는 것만 아니라 상상하는 것까지도 죄악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제 2계명이 예술 활동을 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술 활동으로 피조물을 조각하거나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림으로 상징하거나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예배 때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은혜의 수단
은 성화나 새긴 우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성례”이다. “인간을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고안하거나 만들어 인간의
감관을 매료시키는 것은 성경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다.²³⁾ 그리고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자와 그
러한 교훈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어떠한 “칙령이
나 법규, 또는 제도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기 때문이다.²⁴⁾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성경에 기초해야 하고, 어
떤 이유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를 그리거나 조각하
여서 가르치거나 섬기는 것은 정죄 된다.

(3) 예배자의 자세

예배하는 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성경의 가르침
에 따라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되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예배하는 자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3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예배
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
배하는 것이다. 예배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합당하게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미신적으로 예배를 오용하는 것
은 정죄 된다. 그래서 칼빈은 제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강신
술, 저주, 불법적인 축귀 행위, 기타의 사악한 주문 암송 등의 미
신에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금한다고

23) Cotton, *Some Treasure Fetched out of Rubbish*, p. 16.

24) *Ibid.*

하였다.²⁵⁾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제 3계명이 “저주나 위증이나 필요 없는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악용하는 것”을 정죄 하였다(99문). 그러나 「대요리문답서」는 제 3계명을 금지 사항보다는 명령으로 해석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분깃, 그의 사역과 그 외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록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기록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기록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 해야함을 교훈하였다(112문).

(4) 예배의 시간

하나님은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해 주일을 구별하여 제정하였다. 이 날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였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른다. 칼빈은 안식일은 “그림자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식기간 중에 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안식일 제도는 의식법으로 “모세의 잔영처럼 폐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교도들에게 안식일은 영구적인 도덕법이었다. 대요리문답서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제 7일로 지켜왔으나, 그 후로부터 매주 첫째 날로 되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요,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부른다”(116문). 여기서 칼빈은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보면서도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설명하여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도덕법으로 해

25) 「기독교 강요」, p. 80.

석하여 신학적 통일을 이루고, 안식일이 주일로 되었다고 하여 신구약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청교도들이 칼빈보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안식일 폐지론자들은 칼빈의 말을 빌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은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하였지만, 철저한 주일 성수론자였다. 칼빈은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날은 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시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러한 일들에 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계적이며 육체적인 일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생의 행위와 관계 있는 모든 추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일은 “비인간적인 주인들이 계속적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부려먹음으로 적절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종들과 짐승들의 노동을 면제하여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하였다.²⁶⁾ 따라서 칼빈에게 주일은 예배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칼빈의 주일 사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도 나타난다. 문답서는 설명하기를, 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것과, 특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석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나쁜 것을 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 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도록 요구하신다”(103문)고 하여 주일을 교회 교육과 예배의 날로 규정하였다.

26) 「기독교 강요」, pp. 84, 85

청교도들은 누구보다도 주일 성수에 철저하였다. 「대요리문답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함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 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117문).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할 것을 주장했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교육하는 날로 구별하였다. 그들은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 하루를 쉰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와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의 날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와 같은 신앙은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로부터 물려 받은 신앙적 유산이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왔고,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 준 개혁주의적인 예배의 지침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성경이 명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어떤 형상이나 조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라도 상징화해서는 안되고, 영이신 그분을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거룩히 부르며 사용하고,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고 오는 세대에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의 내용이다.

4. 개혁주의 교회와 예배의 성격

개혁주의자들은 예배 의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구약이 아니라 신약적인 사람들이다. 신약시대의 예배와 구약시대의 예배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형식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것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 주려고 비유나 상징을 지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하여 도덕적인 의무를 제시하였다.”²⁷⁾ 성막과 성전제도, 번제, 화제 등의 제사제도, 제사장직과 제사장이 입던 예복과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였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예표와 상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고(마 5:17),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 “유대적인 제사 의식의 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그림자나 세상적인 화려함, 또는 속세적인 미덕”과 같은 장엄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²⁸⁾

구약의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요 비유라면, 신약의 예배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신약 예배의 특징은 “질서와

27) Cotton, *Some Treasure Fetched Out of Rubbish*, p. 20.

28) Cotton, *A Treatise*, p. 28.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의식을 강조하는 예배운동이 자유주의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식주의적인 예배로의 환원은 이미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존 키블(John Keble)을 중심으로 일어난 옥스포드 운동(Oxford Movement)과 함께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이 부정되면서 강단이 약화되자 예전운동은 영향력을 확대해 갔지만, 결국 1960년대 이후 의식적인 예배를 주도해 온 교회들은 교인 감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에 있다. 존 코튼(John Cotton)은 말하기를 "도덕적이며 영적인 의무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의식들은 외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였다.²⁹⁾ 따라서 신약시대가 되었음에도 외적인 장엄한 의식을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한 "예배가 아니며, 진리의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도 아니오, 다만 거짓된 예배일뿐이다."³⁰⁾ 또한 이같은 예배는 미신에 불과하며 복음의 성질에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약의 예배는 오히려 영적이다. 예수께서는 의식적인 유대인의 제사는 폐지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였다(요 4:23).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드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성령만을 강조하는 신비적 또는 은사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가 추구해 온 예배의 양면성 원리이다.

예배가 말씀과 성령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과 기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화려한 교회 장식이나,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드리는 찬송보다는 영혼을 쏟아 부르는 찬송이다. 이런 이유로 개혁자들은 성가대 중심의 찬양보다는 회중 중심

29) Cotton, *Some Treasure Fetched Out of Rubbish*, p. 20.

30) John Cotton, *John Cotton's Answer to Roger Williams* (Providence, Rhode Island: Narragansett Club, 1867), p. 138.

의 찬양을 강조하였고, 시편 찬송을 중히 여기면서 악기 중심적인 예배를 반대하였다. 하나님은 외적인 오만함과 엄숙함 가운데 드리는 찬양보다는 생생한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쾰링글리나 칼빈은 음악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에서 악기 사용을 반대하고 회중 찬송을 선호하였다.³¹⁾ 악기 중심의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보다는 인간 중심적이며,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영적인 열정을 도적질하여 간다.

이와 함께 요구되는 것은 기도의 개혁이다.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일 수 없고, 기도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틀에 박힌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게 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는 기도는 주문과 같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수영할 줄 모르는 초보자가 튜브를 가지고 수영을 배우듯,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문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기도문에 얽매이는 것은 옳지 않다.

5. 맺는 말

예배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히 13:8).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마 24:35),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17)고 하신 것처럼,

3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덕교, 「청교도와 교회 개혁」(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1994), pp. 276-300을 참고하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동일할 것이며,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불변할 것이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고 하신 것처럼,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도 동일할 것이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올바른 것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예배를 개발하거나 보급하여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